



濁流清論

제68호 2022년 4월 4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1
- 아주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신임총장에게 거는 기대	
<u>특집</u>	4
- 신임교원 소개	
<u>소통과 담론</u>	9
-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2' 좌담회	
<u>교수들의 건강칼럼</u>	15
- 남성 노화	
<u>저서 소개란</u>	16
- 기능의학적 시각으로 비만관리 시작하기 (주남석)	
<u>소식</u>	17
-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 교수회 후임 감사 선출	
- 120차 대의원회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아주대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신임총장에게 거는 기대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규

신임 총장 취임

2022년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최기주 신임 총장이 취임하고 맞은 첫 학기이다.

최근 대학은 무한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총장의 리더십은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최기주 총장의 취임을 축하함과 동시에 커다란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1973년 개교 이래 아주대학교는 참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머뭇거리기도 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교내 인프라 구축에 앞다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최신 설비를 갖춘 생활관인 국제관과 일신관이 들어서고 첨단 실험동 혜강관이 준공할 예정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평택에 제 2병원을 지어 지역 사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주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사람, 아이디어, 자본의 3요소

개교 50주년을 앞둔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뛰어
야 한다.

최기주 총장에게 바란다. 이제 아주대에 대규모 개
발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이 아니라 연
구개발 붐이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에 뒤쳐져 있던 유럽이
16~17세기의 과학혁명을 이루면서 세계를 지배하
게 된 계기는 중세 유럽에서 태동한 자유도시에서
의 개발 붐이었다. 봉건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내어 형성된 자유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
여들었고, 그들은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이로
인해 농업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
라, 조선이나 금속 제련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다. 조선 기술이 발전하
니 항해술이 발전하고, 무역이 촉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금의 유통 수요가 급증하여 금융업이 발전
하고, 이는 결국 물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위험을
회피하도록 해 주는 보험업이 등장하는 토대를 마
련해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
다. 이렇게 한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를 자극하고
하나의 결과는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 발
전을 이루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

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는 자본의 축적과 개
발 붐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람의 집결과 아이디
어의 집결, 그리고 자본의 투자 및 축적이라는 3요
소가 결합하고 이를 지속화하는 일종의 개발 붐이
오늘의 발전한 유럽을 만들었던 것이다.

대규모 개발 붐의 필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3요소가
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개발 붐은 불가능하다
는 사실이다. 예컨대 당시 수공업자들은 다양한 바
퀴와 나사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갖가지
실험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한때 수학과 과학이
유럽보다 앞섰던 아랍에서도 이 같은 기계 장치의
연구와 발전을 보였지만, 유럽과는 달리, 단순한 지
적 호기심 충족이나 예술에의 응용 정도에 머무르
고 체계적인 투자를 이루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발
붐을 만들지 못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화약을 발명
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으나 이를 다양한 총포의 연
구 개발과 발전으로 연결시킨 유럽과 달리, 황제 1
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왕궁의 불꽃놀이에 주력했
기 때문에 역시 후속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주대에는 사람만 있다

이제 아주대에서 대규모 연구 개발 붐이 일기를
바란다.

특히 학제간 연구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본인만의 연구에 몰두하면 작은 연구들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른 분야의 교수들과 협업을 해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학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연구가 나올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대학에는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학문 분야가 있다. 공학과 의학, 약학, 자연계, 인문계, 사회계 등. 이러한 다원성은 풍요를 담보해 준다.

그러나 지금 불행히도 아주대에는 사람만 있다. 아이디어의 교환이 없고, 자본의 투자가 없다. 교수들이 연구실 문밖에서 나와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아이디어에 자본의 투자가 일어나는 개발 붐이 형성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

그런데 마침 새로 취임한 최기주 총장이 최고의 교통 전문가라는 점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교통이란 물자와 인간의 이동을 말하는데, 이는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다. 미국이 번영하게 된 이유가 물론 유럽이 1, 2차 대전이라는 전쟁에 빠져 있을 때 대량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장한 점도 있지만, 철로와 도로 망의 구축으로 물자와 인간의 이동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아주대도 각 구성단

위가 다양한 채널로 연결되면서 인적, 물적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도약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대의 일대일로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시행하고 있다. 아주대의 일대일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총장은 취임사에서, 교통전문가로서 아주대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아주대 미래 100년을 위한 길을 개척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아주대의 과거와 현대 그리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상을 현실로(路)', '경험을 성취로(路)', '우리를 하나로(路)', '노력을 성공으로(路)'라는 네 가지 길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길이 아주대의 모든 인적 물적 자본과 자원들이 잘 효율적으로 재결합하고 소통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연구개발 붐으로 이어져서 아주대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리고 이 소망이 원천골 캠퍼스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특집

2022 1학기 신입 교원 소개 (가나다순)

화학공학과 김 석 기



저는 박사학위는 금속 촉매를 합성하고 성능을 시험하는 것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후 박사 후 연구원 때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론적 촉매 설계 분야로 연구를 범위를 넓혔고, 현재도 주로 이론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실험 연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엔 주위에 실험을 잘 하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을 촉매 반응을 활용하여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및 반응 공정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대학교엔 촉매와 반응 공정 설계를 잘 하시는 선배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주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대학교 출신의 능력자분들도 여럿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심성이 착하시고 지혜로우셨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와서 학생분들을 보니 그런 성품과 능력이 자라나는 터가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답니다.

며칠 전부터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저무는 희망이 보이네요. 앞으로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학생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의학과 외과학교실 김 창 우

안녕하십니까, 외과학교실 부교수 김창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우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3월부로 대장항문외과 과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주된 관심분야는 대장암의 치료, 탄탄한 수술 실력을 바탕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고주파열치료, 면역항암제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최선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환자의 상태와 대장암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주대세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 세계최고)를 기치로 내걸고 수술 방식의 상향 평준화 및 표준화, 대장암 환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간호사 교육과 증원, 빼어난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주대가 쌓아온 우수하고 선도적인 모습에 걸맞은 '아주대세'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문성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 3월 학기부터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에 근무하게 된 문성곤입니다. 저는 건설공학 및 프로젝트관리를 전공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영국 (Aston University Birmingham)과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올해 아주대학교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분야는 건설 관련 융합 연구입니다. 무인항공기와 딥러닝을 접목한 시스템 개발과 Photo-voltaics를 도시와 건물에 적용하는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의 설치 Logistics 최적화 및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건설기법 개발 또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며,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안과학교실 이주향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안과 신임 조교수 이주향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으로 여러 교수님들께 첫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의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강사를 거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4년간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좋은 기회를 얻어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과에서도 성형안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형안과란 안구를 제외한 눈꺼풀, 안와, 눈물길 등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눈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형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현재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눈꺼풀 수술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협업하고 아주인의 역량에 걸맞는 훌륭한 의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나 학생교육에도 최선을 다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학부대학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다산학부대학의 이진희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철학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BK21철학교육연구사업단 등 다양한 대학에서 연구원과 강사로 근무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에서 대우부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철학의 분야들 중 분석철학, 논리학, 과학철학, 수학철학으로 분류되는 영역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고전 논리학의 철학적 기반과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고전 논리학이란 수학, 과학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전논리학의 기초적 가정을 거부하는 대안적 체계입니다. 예컨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미결정 진술이나 참이면서 거짓인 모순적 진술을 허용하는 논리체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논리는, 고전 논리의 체계성과 확실성을 보존하면서도, 참과 거짓에 대한 우리의 직관 및 일상적인 언어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철학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계성과 엄밀성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직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철학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또 하나의 연구분야는 교양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양교육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을 넘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 윤 영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신임교원 장윤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탁류청론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한 이후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법소송실무와 행정쟁송 사례와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연구분야는 행정법이고, 향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특히 아동,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성실하게 연구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공학과 최 정 일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신임교수 최정일입니다.

저는 학부와 석사는 기계공학, 박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료기기 개발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재료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배우면서 융합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아주대로 옮겼습니다. 저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의공학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 정보를 측정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에 대한 약물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약물검사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상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술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구기 운동을 좋아합니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타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상 규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한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1968년 강화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운종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이곳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가 되었을 때 로펌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웬지 로펌에 맞지 않을 것 같아 판사직에 들어섰지요, 이후 2007년 2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그 결과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하려는 동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법과 법조실무 과목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학부생을 위한 교양강의를 개설한 바 있구요.

법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올 2월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학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책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법조윤리 강의』를 공저로 출간하였습니다.

형사증거법 분야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알리바이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문을 썼고,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변호사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사법불신과 법원개혁'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와 양형기준'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판례 평석으로 '집단모욕'과 '형사 항소심의 양형 통제',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학생들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과도 이런 저런 일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탁류청론의 위상과 미래2 좌담회

- 취 지 : 탁류청론 편집위원회 확대 개편을 맞아 신임 편집위원과 함께 탁류청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참석자 : 김홍표 (약학과), 박대찬 (생명과학과), 박재연 (문화콘텐츠학과), 예영민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정태선 (소프트웨어학과)
- 진 행 : 박재연 (문화콘텐츠학과)
- 시 간 : 2022년 3월 8일 (화) 17:00~18:30
- 장 소 : 교수회실, 울곡관 263호

내 용

- 01 — 편집위원 소개
- 02 — 편집위원회 및 탁류청론 소개
- 03 — 탁류청론과 교수회의 관계 정립 필요성
- 04 — 탁류청론의 방향성
- 05 —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

01. 편집위원 소개

예영민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예영민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태선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정태선이라고 합니다. 편집위원 활동을 2년 했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홍표 저는 김홍표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참여하고, 오늘 두 번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찬 저는 생명과학과 박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02. 편집위원회 및 탁류청론 소개

박재연 반갑습니다. 일단 탁류청론의 '소통과 담론' 코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여했었던 지

난 1년 동안 편집위원회 측에서 약간 나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시도가 저서 소개란 신설과 '소통과 담론'의 리뉴얼이었습니다. 진짜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집 위원님들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두 코너 모두 효율적으로 꾸러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원고를 따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 기본적으로 탁류청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교수님들이 과연 진짜 얼마나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지난 좌담회에서 나왔지요. 주셨던 의견 중 하나가 소통과 담론이 과연 시의 적절하게 핫이슈를 바로 담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발행 되었을 때 그게 뉴스로서의 성격을 뿜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정태선 그간 편집위원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총장 평가 이런 걸 매년 해서 분석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 정년퇴임 하시는 교수님 중에서 글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만한 토픽을 정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온라인 강의 같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김홍표 그런데 탁류청론을 워낙 안 보잖아요. 지금 모바일로 보내도 잘 안 보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안 볼 텐데, 이제 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정말 관심을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자체도 연속성이 없고 회의 주제들 역시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오래간만에 와서 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인 부담으로 가기가 쉬울 거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03. 탁류청론과 교수회의 관계 정립 필요성

박재연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선 편집회의 자체가 맥을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매월 탁류청론을 발행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허덕였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홍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탁류청론이 무엇을 하는 지 몰랐어요. 여기 소속이 어딘지.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교수회의 박만규 의장님께서 쓰니까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현 의장님께서 그만 두면 또 이어질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틀이 있어서 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교수회 소식지, 소통의 수단 및 창구라고 하지만 사실 단과대학만 봐도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한 현상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죠.

박재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수회와 편집위원회의 관계를 정립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회랑 탁류청론 간의 관계가 없다면 아예 분리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표 교수회 대의원회랑 분과위원회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대의원회 산하에 교수님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복지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진행된 총장과의 열린 토크도 예행연습만 2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의원회 활동을 탁류청론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총장과의 열린 토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점

만 실는 거죠. 그럼 총회에 당일 참석 못했던 분들도 잠깐 내용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입교원 소개의 경우 1년에 2번 정도 담을 수 있고, 건강 칼럼은 그동안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께서 계속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많이 읽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04. 탁류청론의 방향성

박재연 지난해에 저서 소개를 만들 때 함께 서브로 만들고 싶었던 코너는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거나, 어떠한 논문을 썼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원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사라진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서소개라는 코너 자체는 저서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현재 관심사나 연구 주제 등을 서로 알아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현실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책을 알리는 건 아니고 교수님들의 최근 관심사를 공유하자는 것이고, 현재는 서로 너무 모르니까 협업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공동 연구도 교내에서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김홍표 탁류청론에 저서를 끊임없이 집어넣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형식의 소식지에 알맞고 적절한 형태의 글, 내용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의견이 있다면, 히스토리 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만든 지금까지 나왔던 탁류청론을 쭉 이렇게 모아둔 탁류청론 합본호처럼 말이죠. 그런 일을 누가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정태선 저는 탁류청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거라면 교수님들의 관심사를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퇴직을 앞두신 교수님들께서는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게 좋을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교수회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집위원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해 온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교수님들께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탁류청론에 자기 글을 쓸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영민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요?

김홍표 인문대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공계 쪽으로 가서 글 써달라고 하면 반대를 표명하잖아요. 글 쓰는 거 자체가 학생들한테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안 쓰잖아요. 교수가 가장 책을 안 읽는 집단인거 아니죠? 그러다보니 청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결국 한번 부탁해서 써보신 분들이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전 편집위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재연 탁류청론이 교수회와는 독자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교수회의 소식지 역할에 더 충실할 건지를 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김홍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회의 대의원 회의할 때 편집위원장님이라도 가서서 대의원회 내용을 들고 와서 거기서 정리한 걸 먼저 집어 넣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의 적절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교수의 권익을

다루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는 것
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써야 더 많은 교수님들께서 읽어
주시겠지요.

예영민 교수회 대의원회는 자주 하나요?

김홍표 차라리 저서 소개보다는 신간 소개로 해서 편집
위원이 한 권씩만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하면 오히려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김홍표 대의원회는 월 1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분과위
원회도 따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원고 청탁하는 것도 편
집위원회 이름이 아닌 교수회 이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영화 위원장님께서 대의원회에 종종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재연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전에 한번 나왔던
의견 중에 큐레이션을 해서 재밌게 봤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소개해도 오히려 재미있는 정보가 될 것 같다
고 하셨습니다. 일단 편집위원과 원고 써주시는 교수님
모두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게 지금 저희의 미션인 것 같
아요. 결국 라이트하게 가야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
니다. 그 간 편집위원 교수님들께서 정 안 되면 나라도 쓴
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왔는데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은 발
행해야겠죠. 매월 발행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발행을 중단하는 것은 좀 급진적인
결정일 것 같고요.

05. 탁류청론의 포맷

박재연 탁류청론 포맷을 정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의 경우 교수회에서 나온 이슈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박만규 교수님의 손에서 나온 형식을 띠고
있는 거고, 뒤쪽 코너는 그때그때 정해서 끼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태선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라는 코너는 원래 있었고,
고정으로 한 분이 쓴 적은 없었는데, 박만규 교수회 의장
님께서 지난 1년 정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고 수집의 어려움과 교수회 의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교수님들의 의견이 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재연 탁류청론의 제일 앞 코너이다보니 조회수가 제
일 잘,나오기는 하지만, 지난 좌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6.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

박대찬 소통과 담론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담론을 멋있게 하면 좋지만 무거워서 잘
안 읽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주제도 큰 담론이고 좋지
만은 그런 정보들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 많이 얻을 수 있
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너무 지엽적인 주제
일 수 있지만 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서 던지면, 우선 자극적이고 담론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
슈를 끝 만한 분이면 사실 관심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공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사업을
할 때, 디지털 혁신 사업처럼 교과 과정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 있으면 교수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연구팀이나 교무팀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진행

이 될 때 관련 주제에 대해서 던지고 학교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본부 관계자분이 참여하시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과 담론에서 편집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만 잘 선택하면 그 안에 내용이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거랑 무관하게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영민 저는 올해 거기에 한 번은 학생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얼굴 보고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교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등 학생의 의견을 모아서 교수님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박재연 학생 참여도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태선 저도 신입생 환영회를 학생회 주도로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잘 진행하더라고요.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것도 교수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SW전문인력양성'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4년간 연평균 15억을 지원해 주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이 산업체의 전문인력이 대학에 와서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주제에 대하여 회사의 전문인력이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

박대찬 이번에 LINC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연대 교수님들도 '자연대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우리보다 인문대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느낄까,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황당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 다른 단과대의 목소리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인문대 교수님 아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제들은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연 좌담회를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시기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덜 나오시는 상황이라 만약에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하는 게 더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전 좌담회의 경우에도 안 오셔가지고 편집위원이 자리를 채웠거든요. 덧붙여서 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인문대 과목 중에서 데이터랑 관련 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다들 어떤 부분이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좌담회의 경우에도 주제나 큰 그림을 정해놓고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영민 예를 들면 학생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곧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교수들끼리만 이야기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이 좋고 싫은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것이 잘 가르쳐주는 거고 잘 이끌어주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들

어보면 교수가 반성도 할 수 있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지 회의 의지가 있다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그쪽의
않을까 생각했어요. 의지가 약해지면 여기도 흐지부지 될 테니까요.

박대찬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재연 네, 적절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의장님과 교수회에도 전달 드리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홍표 사실 이러한 의견과 주제들은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일이 좀 커지는 부분 같습니다. 가령 사업단 얘기를 하려면 산단 쪽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있으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사실 행정 교수님들한테 행정가로서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주제는 교수회의 차원으로 얘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탁류청론이라는 틀에 담아야 될 형식이 무엇인지, 누가 담당할 건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회 업무하시는 분 교수회 조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박재연 사실 편집위원회 과업의 종류나 양이 많다고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나 예측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오더가 잘 안 내려오기도 하고 하루 이틀씩 밀리면서 계속 회람만 되기도 는 문제가 있거든요. 업무 분장의 문제도 사실 좀 있었고요.

김홍표 원래 성질 급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편집위원회가 계속 끌고 갈 사람도 사실은 해야 할 필요나 이유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리워드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식이잖아요.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굴러갔을 텐데,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연속성하고는 멀어지고 형식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소속감 같은 거라고 봅니다. 교수

교수들의
건강칼럼

남성 노화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최 종 보

남성 노화란?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변하는 신체의 기능도 있으나 남성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감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남성호르몬의 변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남성 호르몬의 긍정적인 영향

남성호르몬이라는 것은 남성의 성 발달 및 이차 성징후 발현에 중요한 호르몬으로 사춘기에 최고로 증가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약 55세 정도에 최고치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남성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점차 성기능이 감소하고 피로감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남성호르몬은 사춘기에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체형이 남성으로 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년기 및 그 이후에는 성기능을 유지시키고 정자의 생성으로 생식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남성호르몬과 성기능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그 역할은 성적흥미를 유지시켜주고 성기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성욕을 발생시키는 한편 사정능력을 유지시키고 특히 남성의 야간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호르몬의 역할은 비단 성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는 데에도 남성호르몬은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보면 과도한 공부량 때문에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 있느라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활동도 적지만 그들의 근육은 불쑥 불쑥 잘 자라 만져보면 탱탱함을 유지하는 반면에 장년층의 남성들은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헬스클럽도 열심히 다니고 몸에 좋다는 온갖 보양식을 다 먹지만 근육은 점차 줄어들어 몸의 체형은 나이가 들어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 "가장 좋은 화장품은 젊음이다"라고 했듯이 몸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젊었을 때와 같은 남성호르몬의 유

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성호르몬은 비만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다. 즉 비만한 사람들에서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으며, 남성호르몬이 부족한 비만증 환자에서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줌으로써 체지방이 감소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남성 갱년기에는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일반적으로 몸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폐경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갱년기임을 알 수 있는 현상이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 여성호르몬 감소는 폐경기에 들어 급하게 나타남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남성호르몬의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어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성호르몬의 부정적인 영향

그러면 성호르몬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만 미칠까? 그 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남성의 가장 큰 적은 전립선이다. 이 전립선의 성장은 남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에 남성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시와 같이 거세한 남성은 전립선이 성장하지 못하므로 전립선 비대증이 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하지만 수용체의 감수성은 높아지므로 전립선은 점차 비대해지게 된다. 실제로 전립선 치료약 중에 널리 쓰이고 있는 약에는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프로스카나 아보다트와 같은 약물이 있으며, 이런 약물들을 6개월간 복용하였을 때 전립선 크기를 3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립선암의 치료에도 남성호르몬을 차단하는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고환을 절제해 내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남성호르몬 보충은 증상을 호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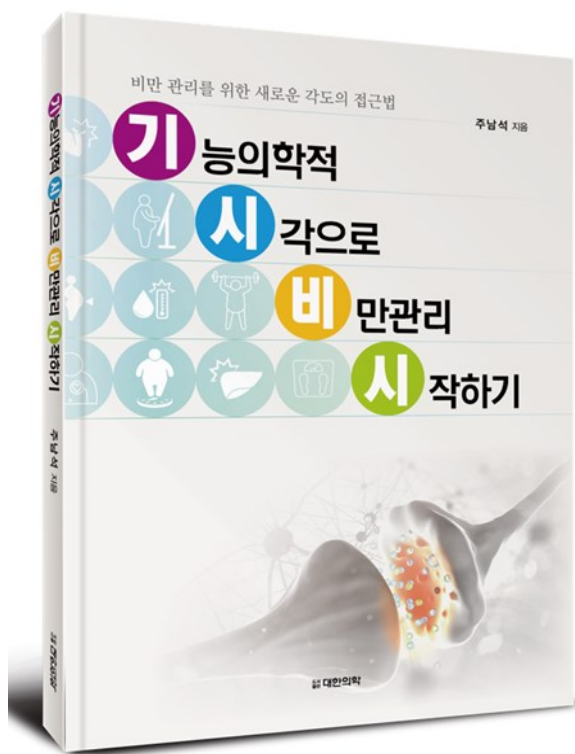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할 때는 위와 같은 영향들을 고려하여 검사를 중간 중간에 시행해 가면서 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몸에서 줄어들어도 문제이고 많아져도 문제인 남성호르몬... 잘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저서
소개란

기능의학적 시각으로 비만관리 시작하기

(저자 주남석,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주남석 저 | 도서출판 대한의학 | 2022년 01월 17일

전 세계 인구의 30%가 비만으로 몸서리 치고 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비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만은 치료 해야할 질병이다. 수 많은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중 관리, 체지방 감소에 중점을 뒀야 한다.

비만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대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집합체다. 한 두 끼, 한 두 달 잘못된 식습관으로 유발되는 병은 아니다. 오랜 시간의 x축, 늘어나는 체지방의 y축의 점진적인 진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다양한 방법들로 체중을 줄이거나 줄인 체중을 잘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그게 마음만큼 쉽지 않다.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체중을 줄일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즉,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이차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인체 내의 변화들을 정확히 염두해두지 않은 결과다.

방이 늘어나면서 이차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인체 내의 변화들을 정확히 염두해두지 않은 결과다.

기능의학은 병리적인 상태나 결과 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전체 진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존에 잘 알려진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연관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 학문이다. 즉, 나의 유전자, 에너지 관리, 비타민 미네랄 등의 각종 영양, 호르몬, 생활습관, 신경망, 해독 과정, 장내 건강, 면역체계 등 거미줄처럼 얽여져 있는 우리 몸을 역동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다 (2017년 기능의학 서문 중).

비만처럼 기능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병은 없을 것 같다. 다양한 생활습관, 영양, 호르몬, 자율신경계, 장내 염증 및 세균 불균형, 그에 따르는 다양한 에너지 불균형, 중금속 오염 등, 이런 다양한 요인들 (본 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관리하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을 따져 보고, 평가하여 단순히 식욕만 줄이는 치료에서 벗어나서 긴 시간에 걸쳐 불균형에 빠진 인체를 재평가 해 보고,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서는, 저자가 20년 남짓 진료한 비만 환자들의 치료 경험, 각종 학회, 연구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능의학적 시각으로 접목을 시도한 도서다. 매년 본 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자료를 글로 옮기는 과정의 결과이며, 비만 공부를 시작하거나 진료 현장에 있는 임상 의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것들의 일부를 나열하였고, 비만 환자를 전인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홈페이지: <http://prof.ajou.ac.kr/prof/>

소식

교수회 소식

2022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2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2021학년도 교수회 활동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박진희 간호학과 교수님의 간호대학의 CQI사례 발표를 통해 CQI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신임 총장과의 열린 Talk를 통해 최기주 총장님의 포부와 의지를 들을 수 있었다. 또, 총회 중간에 추첨 이벤트를 준비하여 50명의 교수님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한해 동안 교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교수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교수회 후임 감사 선출

그동안 교수회 감사로 수고해 주신 강민철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부터 기획처장에 임명되심에 따라 후임 감사 선출을 진행하였으며, 교수회 회칙에 따라 후임 감사 후보를 대의원회에서 추천 받은 후 추천 받은 후보에 대한 선출 투표를 진행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산업공학과 박기진 교수님께서 후임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교수회 회칙에 따라 전임 감사의 잔임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교수회 감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교수회 제 120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3월 30일 오후 4시 30분 Zoom을 통해 교수회 120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 교수회 시그니처, 뉴스레터 발간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준되었으며, 교수회 연컨퍼런스, 총장 면담 의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대의원 확대 총원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번 논의에 따라 2022년부터는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이며, 교수회 주관 연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



편집위원회:

김홍표, 박대찬, 박재연, 예영민, 오동석,
정태선, 최영화